

현대자동차 인권정책

원칙

현대자동차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 협약,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 진출 국가의 법규 등 여러 국제 인권규범(이하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거나 이를 방조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현대자동차는 모든 업무 수행 및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인권정책에 따라 인권에 관련된 전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인권정책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법인, 에이전트, 중개인, 합작회사 등 공급망이 포함되며 사업 및 투자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운영 지침

강제노동 금지 현대자동차는 노예제도·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육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아동노동 금지 현대자동차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근로를 금지합니다.

근로시간 현대자동차는 각국 법규에 따른 근로시간 기준과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현대자동차는 각국 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 시, 동일 법규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평등 및 다양성 현대자동차는 모든 임직원과 지원자에게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고용, 승진, 보상, 징계 등의 인사관행에 있어서 피부색,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상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임직원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 현대자동차는 근로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현대자동차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모든 작업자가 당사의 '환경경영방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 수행, 개인 보호장비 제공, 정기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권 상담 및 처리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임직원과 협력사의 인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는 업무 중 건의할 사항이나 염려 사항을 느낄 경우 해당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고충처리위원회 및 준법지원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사는 투명구매실천센터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통해, 이외 이해관계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제보자의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